



釜山東萊로타리클럽 華山 金均 會長님과 會員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一行인 지산 金泰潤 總裁地域代表님과 서암 朴奉吉 地區事務總長님과 함께 釜山東萊로타리클럽을 공식訪問하는 자리에서 人事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榮光스러움을 禁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1978年度에 創立되어 30年 가까이 오늘의 東萊클럽이 있기까지 클럽과 로타리의 發展을 위하여 獻身하신 歷代會長님과 會員여러분의 崇高한 奉仕精神에 깊은 感謝와 尊敬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一行을 위하여 철저하신 準備와 따뜻한 歡迎로 맞이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釜山東萊클럽이 創立될 때만 해도 釜山에는 9개 클럽밖에 없었습니다.

열 번째 클럽으로 誕生하면서 飛躍의인 地區擴大가 始作되었습니다.

그리고 韓國로타리 70年에서 1978年부디 1987년까지의 10年을 “韓國로타리의 成熟期”로 구분하고 있으며

3660地區만 하더라도 이 期間동안에 釜山과 濟州에서 30個 클럽이 誕生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釜山東萊클럽은 韓國로타리 發展의 歷史의인 進運과 더불어 출범하여 時代가 要請하는 歷史的인 使命을 다 하면서 로타리의 教科書처럼 活動하여 660 模範클럽 중의 模範클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總裁님을 배출하면서 많은 指導者들이 클럽과 地區의 發展을 위하여 크게 寄與해 오셨으며

특히 今會期에는 前임 前總裁님은 물론이거니와 金泰潤 前會長이 總裁地域代表로 그리고 김중혁, 추우호, 이수현, 이규현, 조병주 前會長께서 地區組織의 각 분야에서 저를 도와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빙기 전에 總裁公式訪問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年間計劃과 目標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歷史를 지닌 클럽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線을 上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重要目標은 이미 目標을 達成했으니 앞으로 남은 10個月은 무엇이며 지내시겠습니까?

東萊클럽이 名門클럽의 位相을 지니고 있는 것은 꾸준하고 한결같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目標은 不變이 아니라 可變의입니다. 上向 수정을 거듭 하면서 今年이 東萊클럽 最高의 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尊敬하는 會長, 會員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今年度 RI의 運籌基調는 “앞장서 나아가자”이며 그것이 標語로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까?

그것은 클럽의 強化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로타리 財團, KR財團, 弘報活動 등 로타리가 해야 되는 모든 領域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클럽이 定한 어떤 代表的이고 重要한 目標과도 다른데 그것에 全力投球하는 것을 뜻하는 意味도 될 것입니다. 앞장서 나아가는 指導者의 경우는 率先垂範을 통해서 全會員이 參與도록 하는 것이며

會員의 경우도 率先해서 參與하는 것을 意味할 것입니다.

參與와 앞장서 나아가는 參與의 區分은 있을 수 없지만 強制가 아닌 自願의이고 自律의인 實踐行動을 뜻할 것입니다.

저는 로타리 發展의 原動力은 항상 앞장서 나아가는 參與精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年에 여러분은 그 參與精神을 FULL로 發揮해서 로타리 2世紀의 前運動力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地區運籌 方針을 6個項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RI 力點事業의 推進입니다.

지금 RI의 政策推進 基調는 持續性에 두고 있습니다.

RI會長에 따라 每年 바뀌는 것이 아니라 重要한 奉仕懸案은 繼續的인 奉仕目標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든 RI會長의 力點事業도 前任者의 것과 同一하게 力點事業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水資源 관리, 文盲退治, 保健 및 기타 安化 그리고 로타리 家族에 대한 事項입니다.

모든 事項을 모두 다룰 수 없지만 저는 缺食兒童 無料給食과 로타리 가족 사상에 대한 問題는 각 클럽에서

關心을 갖고 對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地區의 人的 資源 最大活用이고

셋째는 會員의 維持와 增強입니다. 強調하고 說明드릴 必要도 없이 우리 모두 잘 아는 事項이고 最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事項이 되는 弱勢클럽의 活性化는 여러분에게는 該當事項이 될 수 없지만 어느 클럽도 弱勢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事項은 EREY 運動의 擴大인데 한번 挑戰해 보실 價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會員이 參與해서 EREY 100% 클럽을 한번 目標로 해 보십시오. 바로 앞장서 나아가자를 實踐할 수 있는

Target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弘報活動의 強化인데 이를 위해 저는 釜山銀行長을 만나서 釜山地域 150개 지점에 비치할 수 있도록

要請해서 承諾을 받았고 이미 총재월신 150부는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地域社會에 배포처를 만들어 弘報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弘報는 奉仕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奉仕活動을 알릴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 보십시오.

地域區 單位로 統合하여 규모를 크게 해서 言論媒體의 關心을 끄는 것도 한 方法일 것입니다.

하여간 時代는 PR時代입니다.

우리의 活動이 널리 알려져 奉仕에 參與코자 하는 분들이 로타리의 門을 두드릴 수 있도록 弘報活動의

활발한 展開를 부탁드립니다.

정황한 저의 人事를 敬請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끝으로 釜山東萊로타리클럽의 무궁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면서 人事에 갈음합니다.



다음주 주회 안내

♣ 부부 동반 야외 주회 ♣

다음주 야외주회는 울주군 내광리에 위치한 고준희 회원님 별장으로 부부동반으로 참석 하셔서 야외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와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8월 30일 (수)

18:00 모임 --> 18:30 출발

장소 : 허심청 정문 앞

❧ 럭키 타이 ❧

지산 총재지역대표 ->



<= 효봉
총재님



육전
회원 =>



<=서암
사무총장



세광
회원=>



봉사금을 내면서 ..

*동래 RC 공식 방문해 주신....

효봉 남기석, 서암 박봉길. 100,000 원
지산 김태윤. 30,000 원

*축하해 주심에 감사. 최수기.50,000 원

*총재 공식 방문을 받기며.

소담 김종덕. 20,000 원

육전 배두식. 20,000 원

세광 노수용. 20,000 원

만해 박성환. 10,000 원

송남 이재인. 10,000 원

*정봉 한상남 이사님~ 지난번 바둑 동호회 저녁 잔조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춘경 강진규. 20,000 원



회비납부안내

7월-8월 (1분기) 25만원

우리은행 이동균

(기일내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2-430-523422

◎ 금주의 출석 및 현황

조	이호	성명	출석	출석률
1반 조장	윤곡	박동규	出	86%
	정림	서성민	出	
	임봉규	서원	出	
		유근복	出	
		노수용	出	
2반 조장	청포	김영포	出	86%
	여곡	박준배	出	
	정석근	정태훈	出	
		김형우	出	
		도재철	出	
3반 조장	화산	김군	出	86%
	계산	김승희	免	
	성훈섭	세호	出	
		소양	出	
		송현	出	
4반 조장	정봉	한상남	出	86%
	춘경	정대기	出	
	강진규	백성기	出	
		민수	出	
		송일	出	
5반 조장	만해	박성환	出	86%
	송현	다공	出	
	김창한	육전	出	
		박신	M	
		호산	M	
6반 조장	우성	정동문	出	71%
	윤현	무진	出	
	추우호	김성수	M	
		전석호	出	
		심상문	出	
7반 조장	정암	윤기호	出	83%
	소담	곽효룡	M	
	김종덕	김원우	出	
		오용문	M	
		최석주	出	
8반 조장	육당	최주수	出	67%
	동재	김종규	免	
	박동원	문진상	出	
		이재인	出	
		이남근	出	
9반 조장	유현	조병주	出	83%
	일묵	김태운	出	
	이수현	손경호	免	
		조정규	出	
		석형근	出	

總會員 : 60 出席會員 : 40 出席免除 : 6 M : 5 / 平均出席率 : 85%

화산 김군 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효봉 남기석 총재님,
 서암 박봉길 사무총장,
 지산 김태운 10지역구대표를
 모시고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래 클럽은 창립이후,
 차기에는 30주년이 되고,
 금회기 30년차에 접어들었습
 니다. 의미 있는 시기에
 회장의 직을 맡았으나,
 부족한 능력으로 선배님들께
 서 이룩하신 업적에 흠결이나
 내지 않을 가 걱정스럽습니
 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
 습니다.



차 차기 시절부터 어떻게 열심히 할 가, 그 방향을 놓고 많은 생각 하였고,
 또 지구 표창 채점 기준을 놓고도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 것으로 결과를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지구 표창 기준은 클럽들을 100m 달리기 출발선상
 에 놓고, 출발 신호와 함께 스피트 하여 끝인 지점까지 죽을힘을 다 해야 하는 우한경쟁의
 채찍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년,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결과는 지치고,
 자칫 후유증까지 남는다면 그리 길게 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제 로타리 천년에 동래클럽은 930년이 되는 길로 가야하는 것이 우리 회원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래 클럽은 지금도 세대교체를 잘 이루어 정 총재님을 정점으로
 커다란 두뇌 집단이 난공불락의 클럽을 지키고 계시고, 젊은 다리진이 튼튼한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유능한 허리 진은 언제라도 클럽을 안고 갈 수 있는 대기 상태이고, 어깨에 해당하는
 현 집행부도 열심히 해 보려 애쓰며 차근차근 세대교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령차이가 80대에서 30대 까지 무려 50년의 격차가 있지만,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모두가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래클럽의 강점이고 천년을 갈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1년간 봉사하며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1년에 모든 것을 이루려 스피트 하지 않고 새대간,
 특히 젊은 회원들께 중점을 두고 친목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어찌, 빛나던 클럽이 오늘 약세 클럽으로 겨우 연명만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빛나는 것 보다, 내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지구 채점 기준이 주어진다면
 동래클럽도 상당부분 좋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공이산의 자세로 천년을 이어 간다면, 그때 동래클럽이
 가장 역사 깊고 빛나는 클럽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총재님을 모시고, 환영하는 마음은 매우 크면서도, 환영의 인사 한마디 변변히 못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효봉 총재님! 동래클럽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성 정 동문
 생년월일:1943. 2.13
 입회날짜:1981.7.22
 기부현황: P.H.F,
 봉사의인 (3구좌) .

직업: 석대 유주소 (대표)
 회사 : 051-553-1177 ~8 자택 : 051-552-1023
 FAX : 051-529-5821 H.P : 019-523-6203



백민 서성빈
 생년월일:1943. 6. 3
 입회날짜:1986.11.12
 기부현황: 1stone P.H.F,
 장학의인, 봉사의인 (2구좌)
 2002 ~ 2003년도 회장

직업: (주)신광 (대표)
 회사 : 055-383-0111 자택 : 051-513-3019
 FAX : 055-383-0113 H.P : 011-597-0075